

‘-(으)ㄴ 수 {있/없}-’의 의미구조와 양태성*

다카치 토모나리
(우송대학교)

Takachi Tomonari. (2013). An essay on the meaning structures and the degrees of modality regarding the analytic forms ‘-(u)l swu {iss/eps}’-. *Language Research* 49.3, 527-55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aning structure of the analytic forms ‘-(u)l swu iss-’ and ‘-(u)l swu eps-’ from syntactic and semantic views. In effect ‘-(u)l swu iss-’ and ‘-(u)l swu eps-’ represents some modal meanings in sentences. Some researchers mentioned that ‘-(u)l swu iss-’ and ‘-(u)l swu eps-’ have modal meanings such as epistemic and deontic possibilities and they regard ‘-(u)l swu iss-’ and ‘-(u)l swu eps-’ as modal markers, but this perspective is dubious. From the result of a study, some differences and resemblances between ‘-(u)l swu iss-’ and ‘-(u)l swu eps-’ in syntactic environments are relevant to the semantic difference, and the resemblance of them are revealed through the syntactic environments. Considering ‘-(u)l swu iss-’ and ‘-(u)l swu eps-’ in terms of syntactic and semantic views and adopting a prototype approach,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core meanings of ‘-(u)l swu iss-’ is ‘possibleness’ and the core meanings of ‘-(u)l swu eps-’ is ‘impossibleness’, and they are not real-modal markers but pseudo-modal markers, therefore the modal meanings of them are particular meanings extended from the core meaning of them.

Keywords: -(u)l swu iss-, -(u)l swu eps-, analytic form, modality, actual, potential, core meaning, extended meanings, prototype approach

1. 문제 제기

현대 한국어는 교착적인 성격이 강한 언어이며 분리형태(analytic forms)가 많이 존재한다. 분리형태란 통합형태(synthetic forms)와 대립적 개념을 이루는 형태론적인 단위를 말하는데, 통합형태가 한 단어 내부의 어형 변화로 인하여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을 보이는 형태라면, 분리형태는 두 개 이상의

* 초고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읽고 논평하여 주신 세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한다. 본 논문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실수와 문제들은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단어에 걸쳐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보이는 형태¹⁾라고 할 수 있다(菅野(2006: 172-174)). 본고는 분리형태 ‘-(으)ㄴ 수 {있/없}-’²⁾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통사적 및 의미적 제상을 밝힌 다음 ‘-(으)ㄴ 수 {있/없}-’이 나타내는 의미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 연구의 견해를 살펴보자. ‘-(으)ㄴ 수 {있/없}-’에 관한 선행연구로 박재연(2003), 임동훈(2003), 안정아(2005), 안주호(2004), 그리고 시정곤, 김건희(2009)가 있다. 박재연(2003)과 안주호(2004)는 ‘-(으)ㄴ 수 {있/없}-’을 양태표현(modal expression)으로 간주하였다. 박재연(2003)은 ‘-(으)ㄴ 수 {있/없}-’의 의미를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와 행위양태(behavior modality)에 관련시켰고, 안주호(2004)는 인식양태와 의무양태(deontic modality)에 관련을 지었다. 한편, 임동훈(2003), 안정아(2005), 시정곤, 김건희(2009)는 문장에서의 ‘-(으)ㄴ 수 {있/없}-’의 쓰임이 양태적 의미(modal meanings)로 해석될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되 ‘-(으)ㄴ 수 {있/없}-’을 양태 표지(modal marker)로 보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시정곤, 김건희(2009)는 양태를 ‘화자의 주관적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겠-’이나 ‘-(으)ㄴ 듯하-’와 달리 ‘-(으)ㄴ 수 {있/없}-’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부정의 틀에 포함되는 점, 추측 표현 ‘-(으)ㄴ 겠’이 후행할 경우 부사어 ‘아마도’나 ‘틀림없이’가 ‘-(으)ㄴ 수 {있/없}-’이 아니라 ‘-(으)ㄴ 겠’과 호응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여 ‘-(으)ㄴ 수 {있/없}-’을 양태 표지로 보아야 할 필연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으)ㄴ 수 {있/없}-’의 의미구조에 관해서도 연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정곤, 김건희(2009)는 ‘-(으)ㄴ 수 {있/없}-’의 핵심의미(core meaning)를 [가능성(possibility)]으로 삼아 이것에서부터 [능력], [추측], [허가], [자격] 등의 의미가 파생된다고 보는 단의어적 해석(monosemy view)을 제시하였

-
- 1) 예를 들자면 현대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 ‘-겠-’, ‘-더-’, ‘-(으)사-’, ‘-(어)쓰-’ 등은 한 단어로 이루어지는 문법적 형태이므로 통합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작상(aspect) 범주에 속하는 ‘-고 있-’과 ‘-(아/어) 있-’ 등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문법적 형태이므로 분리형태에 속한다.
 - 2) 분리형태는 단지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통사적 연쇄가 아니라 특정한 문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휘의 연쇄로부터 보다 고차원의 문법형태로 발전되었다(즉 문법화(grammaticalization)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형태를 분리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 남기십(2001: 240-250)이 지적하듯이 관형절과 그 수식의 대상인 명사와의 관계에는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의 두 유형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통사론적 기능은 관형절의 기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으)ㄴ 수 {있/없}-’이 내포된 모든 관형절은 아래 (a)와 같이 동격관형절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Heine and Kuteva(2002: 2)가 말하는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어휘 형식 혹은 문법화가 미숙한 형식에 특징적인 형태-통사론적 특성이 손실되는 현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화 진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관형절의 통사론적 기본 기능의 일부가 손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으)ㄴ 수 {있/없}-’은 문법화가 진행과정에 있는 분리형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a) ㄱ. 가능한 자주, 그리고 친구나 어울릴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9)
 ㄴ. 그녀는 내 동의 없이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16)

지만, 안주호(2004)는 ‘-(으)르 수 {있/없}-’의 통사적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방법], [도리]를 나타내는 자립명사 ‘수’ → [능력],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수’ → 의무양태([능력], [허가]) → 인식양태([가능성])의 발달과정을 밝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안주호(2004)는 은유적 사상(隱喻的 寫象: metaphorical mapping)을 통하여 의무양태에서 인식양태로 양태 표지가 발전해 가는 단일방향성(unidirectionality)의 가설³⁾과 일치하는 현상이 ‘-(으)르 수 {있/없}-’의 의미 확장(meaning expansion)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의어적 해석(polysemy view)을 제시하였다.

‘-(으)르 수 {있/없}-’을 단언어로 볼 것인가 다의어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⁴⁾ ‘-(으)르 수 {있/없}-’을 단언어로 해석하느냐 다의어로 해석하느냐는 문제를 해명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으)르 수 {있/없}-’이 나타내는 의미들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정곤, 김건희(2009)는 ‘-(으)르 수 {있/없}-’의 핵심의미를 [가능성]으로 보았고 ‘-(으)르 수 {있/없}-’의 모든 의미가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연 [가능성]이라는 단일 의미로 ‘-(으)르 수 {있/없}-’의 실제 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안주호(2004)나 시정곤, 김건의(2009)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으)르 수 {있/없}-’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으)르 수 있-’에 대한 고찰에 집중한 나머지 ‘-(으)르 수 없-’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으)르

3) Bybee et al.(1994)는 여러 언어에서 양태적 의미(modal meanings)의 발전경로에는 ‘행위주 지향적 양태(agent oriented modality)/의무양태(deontic modality) → 화자 지향적 양태(speaker oriented modality)/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라는 공통성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의 관계에 관하여 Sweetser(1990: 59-60)는 Talmy(1988)에 의한 힘-역학(force-dynamics) 개념을 바탕으로 영어의 양태 조동사가 행위주 지향적 양태와 인식양태의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행위주 지향적 용법의 ‘may’는 사회-물리적 세계(socio-physical world)에서 사건의 실행을 막는 장벽(barrier)이 존재하지 않음을 함의하는 반면, 인식적 용법의 ‘may’는 이용 가능한 전제들에서부터 화자의 추측 과정을 막을 장벽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즉 Sweetser(1990)는 인식양태를 행위주 지향적 양태의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의 결과라고 본 것이다.

4) 예를 들자면, 영어 양태 조동사(modal auxiliary)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는 양태 조동사의 다의성에 입각한 분석과 단의성에 입각한 분석이 있어 여전히 논쟁 중이다. 다의성 분석의 입장은 양태 조동사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을 모두 의소(sememe)로 인정하고 하나의 양태 조동사는 둘 이상의 의소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다(예: Lyons(1977), Sweetser(1990), Palmer(2001), Hopper and Traugott(2003) 등). 한편 단의성 분석의 입장은 양태 조동사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소에서 파생된 변이의미(alloseme)로 보는 입장이다(예: Klinge(1993), Groefsema(1995), Papafragou(2000) 등).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양자 모두가 양태 조동사가 나타내는 각 의미들 사이에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그 관련성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각 개별적 의미(particular meanings)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일반의미(general meaning)(혹은 핵심의미)를 설정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에 비해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5) 한 심사위원은 ‘-(으)르 수 없-’은 ‘-(으)르 수 있-’의 부정형으로서 ‘NOT[-(으)르 수 있-]’과 같으

수 {있/없}-'의 통사적, 의미 기능적 제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으)르 수 {있/없}-'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구명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으)르 수 {있/없}-'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양태 개념에 대하여 개관한다. 둘째, '-(으)르 수 있-'과 '-(으)르 수 없-'의 통사적, 의미 기능적 제상을 밝힌다. 이때 '-(으)르 수 있-'과 '-(으)르 수 없-'의 통사적, 의미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고찰 결과를 종합하여 '-(으)르 수 {있/없}-'의 의미구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넷째, '-(으)르 수 {있/없}-'의 양태성(degrees of modality)에 대하여 원형적 접근을 시도하여 고찰한다. 다섯째, 본고에서 제시한 견해의 정리 및 남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다.

2. 양태 개념 개관

여기에서는 양태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양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지 못하므로 일단 van der Auwera & Plugian(1998)의 견해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van der Auwera & Plugian(1998)은 서술부가 나타내는 사건(event)(혹은 상태(state of affairs))의 참여자(participant)에 주목하여 양태를 구별하였다. van der Auwera & Plugian(1998: 80)에 따르면 양태는 크게 참여자 내적 양태(participant-internal modality), 참여자 외적 양태(participant-external modality), 의무양태(deontic modality),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우선 양태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의 특성에 대하여 주관성(subjectivity)과 비사실성(non-factuality), 명제(proposition)와 사건(event), 필연성(necessity)과 가능성(possibility)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관성과 비사실성의 관점에서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인식양태는 화자의 신념과 일치하는 판단을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화자의 주관에 입각한 불확실한 성격의 제한적 단언(qualified asser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사실성의 특징을 띤다

며 '-(으)르 수 있-'과 '-(으)르 수 없-'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으)르 수 {있/없}-'의 의미기능적 공통기반에 대한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으)르 수 있-'과 '-(으)르 수 없-'의 비교 및 검토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표 1. van der Auwera & Plugian(1998)의 양태 하위분류

		Necessity	Possibility
Non-epistemic modality	Participant-internal modality	Participant-internal necessity ① needs	Participant-internal possibility (dynamic possibility, ability, capacity)
	Participant-external modality	Participant-external necessity ① deontic necessity (obligation) ② non-deontic necessity	Participant-external possibility ① deontic possibility (permission) ② non-deontic possibility
Epistemic modality		Epistemic necessity (probability)	Epistemic possibility (uncertainty)

(Hoye 1997: 43). 예를 들어 아래 예문 (1)에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화자의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정보에 바탕을 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고 화자의 판단이 실제상황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ㄱ. Jenny is not in office today. She must besick. (作例)

ㄴ. 언제나 같이 다녔던 둘이 오늘은 따로따로 밥을 먹네. 분명히 어제 심하게 싸웠을 거야. (作例)

의무양태의 경우는 아래 예문 (2ㄱ)이 보여주듯이 문장 내용에 화자가 등장하지만 허가의 출처는 청자의 재량과 같은 화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외적 요인에 있다. 또한 (2ㄴ)에서는 문장 내용에 화자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양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의무양태는 화자가 아닌 외부의 의향이나 제약에 좌우되므로 인식양태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식양태의 경우와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는 잠재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어가 나타내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허락이나 의무의 원천이 확고한 요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ㄱ. Can I just try some more cake? (Hoye 1997: 43)

ㄴ. Under no circumstances must students arrive late for class. (Hoye 1997: 44)

다음으로 명제(proposition)와 사건(event)에 관련을 지어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명제란 문장의 핵심적 내용이며, 화자의 주관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명제는 진리치(truth-value)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고, 그 내용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라는 관점에서 측정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사건이란 문장의 술부에 의하여 표현되는 행위 혹은 동작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사건은 문장에서 표시되는 참여자(participant)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화자의 주관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제와 다르다. 위의 예문 (1ㄱ, ㄴ)에서 보았듯이 인식양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며 그 판단의 대상은 ‘she is sick’(1ㄱ), ‘들은 어제 심하게 싸웠다’(1ㄴ)과 같은 명제인 반면, 의무양태는 위의 (2ㄱ, ㄴ)에서 볼 수 있듯이 술부가 나타내는 행위와 그 행위를 실현할 참여자로 인하여 기술되는 사건에 대한 제약 혹은 규제와 관련이 있다. 인식양태는 그 대상이 명제인 반면, 의무양태는 그 대상이 사건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세 번째로 필연성과 가능성의 관점에서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학적 양태 개념에서 필연성과 가능성은 각각 인식양태적 필연성(epistemic necessity)과 인식양태적 가능성(epistemic possibility), 의무양태적 필연성(deontic necessity)과 의무양태적 가능성(deontic possibility)으로 구분된다. 인식양태적 필연성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에 바탕을 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 내용이 실제와 동일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논리학적 필연성과의 차이가 있다(Kearns 2000: 54). 이에 대한 타당성은 위에서 언급한 비사실성의 특징이 뒷받침하여 준다. 한편 인식양태적 가능성은 논리학적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명제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을 제시하되 그와 동시에 명제 내용이 거짓일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의무양태적 필연성은 사건(즉 술부가 나타내는 내용)의 실현을 주어로 나타나는 인물에게 의무적 혹은 강제적으로 성립시킴을 의미하는 반면, 의무양태적 가능성은 사건의 실현을 허락함을 의미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식양태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지식이 현실적 상황과 적합하여야만 실제와 어긋나지 않는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의무양태는 도덕적 혹은 법률적 규정에 따라야 사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나타낸다. 이것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⁶⁾

6) 인식양태 대 의무양태와 같은 이분법적 양태 하위분류 안은 Bybee(1985), Quirk et al.(1985), Sweetser(1990)에서도 제시되었다. Bybee(1985)는 양태를 인식양태와 행위자 지향적 양태(agent-oriented modality)로 나누었다. Bybee(1985: 168-169)에 따르면 행위자 지향적 양태는 의무(obligation), 욕구(desire), 의도(intention) 등 행위자에 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의무양태가 사회적 혹은 도덕적 규제 등 외부적 구속력에 관련되는 반면, 행위자 지향적 양태는 의무, 허가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내부에서 발생될 의도나 욕구에도 관련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Bybee(1985)와 비슷한 견해는 Quirk et al.(1985), Sweetser(199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uirk et al.(1985)의 부대적 양태란 인식양태와 동일한 개념이고, 본질적 양태란 Sweetser(1990)의 근원적 양태와 마찬가지로 의무, 허가, 의도 등 의미(사건 실현의 요인

표 2.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의 차이성

	필연성 Necessity	가능성 Possibility
인식양태 Epistemic modality	<인식양태적 필연성> 화자가 보유한 지식 혹은 정보에 따라 명제 내용이 필연적으로 진실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인식양태적 가능성> 화자가 보유한 지식 혹은 정보에 따라 명제 내용이 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의무양태 Deontic modality	<의무양태적 필연성> 사건 참여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규제에 따라 반드시 사건을 실현하여야 함.	<의무양태적 가능성> 사건 참여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규제에 따라 사건을 실현하여도 됨.

van der Auwera & Plugian(1998)가 설정한 참여자 내적 양태란 어떠한 사건을 실현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내재하는 필연성 혹은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다. 참여자의 능력이나 요구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참여자 외적 양태는 어떠한 사건을 실현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외부적 상황을 표시한다. van der Auwera & Plugian(1998)의 견해에서는 의무양태가 참여자 외적 양태의 하위 양태로 들어가 있다. 즉 참여자 외적 양태는 의무양태가 나타내는 의무나 허기는 물론 그와 성격이 다른 외부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뒤에서 ‘-(으)르 수 {있/없}’의 양태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할 시에는 위에서 개관한 van der Auwera & Plugian(1998)의 틀을 원용하고자 한다.

3. ‘-(으)르 수 {있/없}’의 통사적 및 의미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서는 통사적 관점에서 ‘-(으)르 수 있’과 ‘-(으)르 수 없’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으)르 수 있’과 ‘-(으)르 수 없’의 통사적 공통점은 양 형태 간의 공통적 의미기능적 특성과 직결되고, 또한 ‘-(으)르 수 있’과 ‘-(으)르 수 없’ 간의 통사적 차이점은 양 형태 간의 의미기능적 차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추론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으)르 수 있’과 ‘-(으)르 수 없’의 의미구조가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고 공통기반이 무엇이며, 근원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줄

연관이 있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Quirk et al.(1985)와 Sweetser(1990)는 인식양태와 대립되는 다른 한쪽의 하위 양태(즉 본질적 양태 혹은 근원적 양태)를 근본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본질적 양태와 근원적 양태의 공통적인 특징은 서술부가 나타내는 행위(혹은 사건)의 실현을 행위자가 직접 제어한다는 점이다.

것이라고 생각한다.

3.1.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의 공통점

시정곤, 김건희(2009: 155)에서 예시된 문장 (3ㄱ, ㄴ)이 증명하듯이 ‘-(으)ㄴ 수 있.’은 인칭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데, 이 특징은 (3ㄷ, ㄹ)이 보여주듯이 ‘-(으)ㄴ 수 없.’의 경우도 같이 해당된다.

- (3) ㄱ. {나, 너, 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시정곤, 김건희 2009: 155)
 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시정곤, 김건희 2009: 155)
 ㄷ. {나, 너, 철수}는 스키를 탈 수 없다. (作例)
 ㄹ. 민주주의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19)

위의 예문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은 인칭제약 없이 비과거형의 동사 어간과 잘 결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과거형 동사 어간에 ‘-(으)ㄴ 수 있.’이 결합할 때는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비과거형 동사 어간에 ‘-(으)ㄴ 수 없.’이 결합할 때는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3ㄱ)은 사건 참여자(participant)로 인한 어떤 사건(스키를 타는 행위)의 성립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3ㄴ)에서는 어떤 사건(전쟁)의 성립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반면, (3ㄷ)은 사건참여자의 사정에 의하여 스키를 탄다는 사건의 성립이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3ㄹ)은 민주국가 간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의 성립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안주호(2004: 215)는 ‘-(으)ㄴ 수 {있/없}.’이 비과거형의 동작성 동사와 결합하여 그 동사의 주어가 행위자(agent)의 의미역(thematic role)을 가질 경우 [능력], [허가] 등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 (4ㄱ, ㄴ)에서 ‘-(으)ㄴ 수 있.’이 [능력]의 의미로 해석되고, (4ㄷ, ㄹ)의 ‘-(으)ㄴ 수 없.’이 [무능력]([능력]의 부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4) ㄱ. 우영이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안주호 2004: 215)
 ㄴ. 만 8세 된 아이는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안주호 2004: 215)
 ㄷ. 우영이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없다. (作例)
 ㄹ. 만 8세된 우영이는 아직도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作例)

시정곤, 김건희(2009: 155)에서 지적하였듯이 ‘-(으)ㄴ 수 {있/없}.’의 [능력],

[허가] 등의 의미는 문맥에 의존한 부산물임을 다음 (5)와 같은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⁷⁾

- (5) 가. 나/너/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능력] (돈을 많이 벌어서)
 (시정곤, 김건희 2009: 155)
 나. 나/너/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추측] (스키를 한 번도 안 탔지만, 내가 추측하기에 모든 운동을 잘하니까) (시정곤, 김건희 2009: 155)
 다. 나/너/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허가] (엄마가 어제 허락해 줘서)
 (시정곤, 김건희 2009: 155)
 리. 나/나/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증거] (잃어버린 스키 폴대를 찾았으니깐) (시정곤, 김건희 2009: 155)

시정곤, 김건희(2009)의 지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으)ㄴ 수 {있/없}-’의 [능력], [허가], [자격]이라는 것은 ‘-(으)ㄴ 수 {있/없}-’의 본래의 의미적 본질이 아니라 문맥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날 수 있는 부차적 의미(副次的 意味)이다. 따라서 ‘-(으)ㄴ 수 {있/없}-’이 동사와 결합할 경우 본질적으로는 사건 성립의 [가능]/[불가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고가 고찰한 바에 따르면 ‘-(으)ㄴ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다음 (6)과 같은 문맥적 조건⁸⁾으로 인하여 부차적 의미로 파생될 수 있다.

7) 임동훈(2003: 143)은 인칭 유형에 따라 ‘-(으)ㄴ 수 {있/없}-’의 의미가 구별됨을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증은 이미 시정곤, 김건희(2009: 154-155)에서 제시한 바가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다.

8) 이것에 관해서는 일본어 방언의 가능 표현과 관련된 渋谷(1993) 등 일련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6)의 문맥적 조건은 [가능]의 하위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van der Auwera & Plugian(1998)의 양태 하위분류의 틀 가운데에서 참여자 외적 양태(participant-external modality) 및 참여자 내적 양태(participant-internal modality)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6가, 나, 다)은 사건 성립을 위한 요인이 사건 참여자에게 내재(內在)적이므로 참여자 내적 양태와 관련이 있고, (6리)은 사건 성립을 위한 요인이 사건 참여자에게 외재(外在)적이기 때문에 참여자 외적 양태와 관련이 있다. (6)에서 말하는 사건 참여자는 ‘-(으)ㄴ 수 {있/없}-’이 사용된 절에서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구)로 인하여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 참여자는 행위자와 다른 개념이다. 행위자는 주어자 [+의지성(agency)]을 가진 사건 참여자이며 어떠한 행위를 이루는 주체를 말한다. 사건 참여자는 사건에 등장하는 참여자를 말하며 반드시 [+의지성]을 띤 것은 아니다. 한 심사위원은 ‘나는 불어 책도 읽을 수 있다’나 ‘이 병실은 1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와 같은 예문에서 ‘-(으)ㄴ 수 {있/없}-’이 [가능]의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두 예문에서 사용된 ‘-(으)ㄴ 수 {있/없}-’은 모두 [가능]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나는 불어 책도 읽을 수 있다’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인 사건 참여자의 능력으로 인하여 불어 책을 읽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국어 책, 영어 책과 더불어 불어 책도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참여자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불어 책을 읽는 행위가 성립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병실에 10개의 침대가 있음을 직접 보고 ‘이 병실은 1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에는 외부적 환경에 기한 [가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6) ㄱ. 사건 참여자의 심정(성격, 성질 등 사건 참여자가 가진 영속적 특성)
 ㄴ. 능력(사건 참여자가 습득한 신체적 기술 및 정신적 지식)
 ㄷ. 내부적 조건(사건 참여자 혹은 사건에 내재하는 일시적 조건)
 ㄹ. 외부적 조건(사건 참여자 혹은 사건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 상황, 구속력)

위의 (6)에 따르면 (5ㄱ)은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건 참여자의 내부적 조건에 의거한 [가능]이라고 볼 수 있고, (5ㄴ)은 [추측]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건 참여자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사건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술에 바탕을 둔 능력에 의거한 [가능]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5ㄷ)은 엄마의 [허가]라는 외부적 조건에 의거한 [가능]의 의미이고, (5ㄹ)은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스키 폴대를 찾았다’는 외부적 조건에 의거한 [가능]의 의미로 해석된다. (6ㄱ)의 사건 참여자의 심정에 해당되는 예문을 제시하면 아래의 (7ㄱ, ㄴ)과 같다. (7ㄱ)은 사건 참여자가 심한 긴장 상태에서 마음이 풀려서 편해진 결과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7ㄴ)은 신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개를 들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 (7) ㄱ. 심문이 끝나고 나서야 그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作例)
 ㄴ. 경찰이 돌아간 뒤 장발장은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발장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12)

선행연구에서는 ‘-(으)ㄴ 수 {있/없}.’에 의하여 표현되는 사건 성립의 [가능]/[불가능]에 관한 조건양식(즉 위의 (6)과 같은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으)ㄴ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다른 관점에서도 기술할 수 있다. 洪谷(1993: 14)에 의하면 가능 표현의 의미는 실재성(actuality)과 잠재성(potentiality)의 관점에서 [실재적 {가능/불가능}]과 [잠재적 {가능/불가능}]으로 분류가 가능하다⁹⁾고 하였다. [실재적 {가능/불가능}]이란 사건 실현의 가능/불가능에 대

9) 예를 들면, 영어의 가능 표현 ‘could’와 ‘be able to’에는 다음과 같은 용법상의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은 근무 후에 바로 귀가할 수 있었다(실제로 일찍 집으로 왔다)’는 의미로 예문 ‘be able to’가 사용된 (b ㄱ)은 자연스럽게 ‘could’가 사용된 (b ㄴ)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가정법(subjunctive)의 문장 (b ㄷ)에서는 ‘could’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be able to’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에 비하여 ‘could’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조건하에 실현될 수도 있었던 사건을 표현한다는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 (b) ㄱ. I was able to go home right away after work today. (作例)
 ㄴ. ?*I could go home right away after work today. (作例)
 ㄷ. I could go home right away if the traffic was not too heavy. (作例)

한 심사위원은 실재성/잠재성 개념이 ‘-(으)ㄴ 수 {있/없}.’의 의미 기술에 있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실재성/잠재성의 개념은 ‘-(으)ㄴ 수 {있/없}.’에 고유한 속성이

하여 이미 예정(약속)되어 있거나 실제로 실행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잠재적 {가능/불가능}]이란 사건 실현의 가능/불가능에 대하여 해당 사건을 실현시킬 만한 조건이 있음을 표시할 뿐, 그 사건의 실현이 명확히 예정되거나 약속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잠재성/실재성의 관점에서 보면 ‘-(으)ㄴ 수 있’의 [가능]의 의미는 [{실재적/잠재적} 가능]으로 나누어지고, ‘-(으)ㄴ 수 없’의 [불가능]의 의미는 [{실재적/잠재적} 불가능]으로 나누어진다.

- (8) 가. 그녀는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作例>: [잠재적 가능] (그녀의 이력서의 경력 사항과 외국어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보고나서)
 나. 그녀는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 <作例>: [잠재적 불가능] (그녀의 이력서의 경력 사항과 외국어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보고나서)
 다. 그녀는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作例>: [실재적 가능] (그녀가 외국어로 말하는 장면을 보고나서)
 라. 그녀는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 <作例>: [실재적 불가능] (그녀가 외국어로 말하는 장면을 보고나서)

위의 (8)이 보여주듯이 ‘-(으)ㄴ 수 {있/없}’의 [잠재적 {가능/불가능}]/[실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위의 (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맥적 배경으로 결정될 때가 간혹 있다. 다만 (6)의 사건 성립 여부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잠재성/실재성이라는 개념이 이율배반(二律背反)적 성격이기 때문에 중간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으)ㄴ 수 {있/없}’의 [잠재적 {가능/불가능}]/[실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문맥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도 하지만, ‘-(으)ㄴ 수 {있/없}’에 후행할 문법형태 등 통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될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능]/[불가능]의 실재성/잠재성을 결정하는 통사적 환경은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종결형어미, 분리형태 등 어말 위치에 오는 문법형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말 자리에 오는 문법형태는 실재성/잠재성에 관련된 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으)ㄴ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후행하는 문법형태의 영향을 받아 [실재적 {가능/불가능}], [잠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로 파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라 문맥이나 통사적 환경으로 부가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 표현에 있어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비교하여 기술할 경우 실재성/잠재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으)ㄴ 수 {있/없}’의 의미기능적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실재성/가능성의 개념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어의 가능 표현과 다른 언어의 가능 표현의 비교에 관한 논의는 후고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연결어미 ‘-(어)야’, ‘-(으)면’, ‘-(어)도’, ‘-(어)서’와 결합할 경우

아래 예문 (9)와 같이 연결어미 ‘-(어)야’, ‘-(으)면’, ‘-(어)도’ 앞에 ‘-(으)ㄴ 수 {있/없}-’이 나타날 경우 ‘-(으)ㄴ 수 {있/없}-’은 [잠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연결어미 ‘-(어)야’, ‘-(으)면’, ‘-(어)도’는 각각 [필수 조건], [가정 조건], [양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조건]의 의미는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가 실현됨이 예정(약속)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날 경우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으)ㄴ 수 {있/없}-’이 ‘-(어)야’, ‘-(으)면’, ‘-(어)도’와 결합하면 [잠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 (9) ㄱ. 신용카드사들은 고도로 발달된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를 자극하므로 이와 맞서 이길 수 있어야만 ‘신용카드사’를 위한 ‘신용카드’가 아닌 ‘나를 위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22)
- ㄴ. 애국가를 부를 수 있으면 부르지, 못 할 이유는 또 뭐냐? (3)
- ㄷ. “자신의 사랑은 포기할 수 있어도, 누군가로부터의 사랑은 쉽게 포기 못 하거든요.” (13)
- ㄹ. 이 눈앞에 있는 애정 [애착, 애욕]의 경계가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며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야만 진실로 염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 ㅁ. “나는 이렇게 들었다. 관직을 맡은 자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으면 그만두며, 간언을 맡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으면 그만둔다고.” (21)
- ㅂ. 일을 선택할 수 없어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17)

한편 ‘-(으)ㄴ 수 {있/없}-’이 연결어미 ‘-(어)서’와 결합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래 예문 (10)이 보여주듯이 [실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어)서’가 후행절에서의 언급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가 진실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10) ㄱ. 무엇보다 어떤 사회의 발전이나 진보를 위한 고민 같은 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동질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5)
- ㄴ. 2007년 9월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래세 인하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1)

■ ‘-게 {되/하}- + -(어)ㄴ-’와 결합할 경우

‘-(으)ㄴ 수 {있/없}-’이 ‘-게 {되/하}-’와 결합하고 그 뒤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어)ㄴ-’이 결합할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실현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게 되-’ 및 ‘-게 하-’가 가지는 잠재적 사건을 실현시킨다는 의미 기능적 특성과 과거시제 ‘-(어)ㄴ-’의 [과거]의 영향을 받아 ‘-(으)ㄴ 수 {있/없}-’이 [실현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11) ㄱ. 오빠한테서 돈이 왔거든. 청바지를 살 수 있게 되었잖아. 같이 쇼핑 가지 않을래? (9)
- ㄴ. ‘한국일보 신춘문예’는 내게 새 삶의 기쁨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었고, […(중략)…]. (14)
- ㄷ. 마약의 성분이 밝혀진 이상, 사건이 공식화되는 건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만 아는 다른 정보는 끝까지 감추고 있어야 했다. (27)
- ㄹ. 아버지는 그에게 어리석다, 똥똥하다, 못생겼다, 게으르다는 말을 늘 했고 그가 한 일이 아님에도 그를 비난하고 잘못된 것은 모두 그의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별로 저녁을 굶기거나 주말에 어머니를 보러 갈 수 없게 했다. (20)

■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할 경우

‘-(으)ㄴ 수 {있/없}-’이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할 경우 ‘-(으)ㄴ 수 {있/없}-’는 [실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더-’가 갖는 ‘증거성(evidentiality)’¹⁰ 제시 기능과 같은 [지각(知覺)]¹¹의 의미에 유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12) ㄱ. 조성하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뛰다. 뛰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더라”며 “처음에는 빠르게 걷다가 속도를 붙여서 뛰다. 그러다 힘들면 다시 빠르게 걷는 걸 반복하다 보니 체중이 빠지더라. ‘구가의 서’ 때가 80kg 정도였는데 지금은 70kg이다”라고 말했다. (26)

10) 증거성(evidentiality)이란 화자가 말하는 언급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하여 주는 정보의 출처(source of information)를 표시하는 언어적 표현수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의미들을 통합하는 기능·의미론적 범주를 말한다. J-M Lee(2011: 288)는 ‘-더-’는 증거성 표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범언어적인 증거성의 특성과 달리 ‘-더-’ 자체가 특정한 증거의 종류(예: 시각, 청각, 지각, 전문, 추론 등)를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지적하였다.

11) 박재연(2006: 288)에서는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 기능적 특성을 [[과거] 지각]으로 보았다.

- 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어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5)

■ 종결형어미 ‘-구나’, ‘-네’와 결합할 경우

‘-(으)ㄴ 수 {있/없}-’이 종결형어미 ‘-구나’나 ‘-네’ 앞에 나타났을 경우도 ‘-(으)ㄴ 수 {있/없}-’은 [실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종결형어미 ‘-구나’나 ‘-네’에도 위에서 본 선어말어미 ‘-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각]의 의미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¹²⁾

- (13) ㄱ.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가도 되겠구나. 진심으로 이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나를 다 바치면 결국 그 이로움이 나에게 미치겠구나.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도 생긴다. (4)
 ㄴ. “그것은 말일세. 그 옛날 허유(許有)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에 귀를 씻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네.” (1)
 ㄷ. “나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구나.” (6)
 ㄹ. “사표를 받을 수 없네. 자네처럼 유능한 간부가 사표를 내면 우리 은행의 손실이야.” (18)

■ 분리형태 ‘-(으)ㄴ 것이-’, ‘-는 것이-’, ‘-는 법이-’와 결합할 경우

‘-(으)ㄴ 수 {있/없}-’의 [잠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그 성격상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 ‘-(으)ㄴ 것이-’와 잘 호응한다. ‘-(으)ㄴ 것이-’가 불확실하고 미정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는 성격임을 고려하면 ‘-(으)ㄴ 수 {있/없}-’이 결합할 때 [잠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4) ㄱ. 버스가 아줌마 앞에 섰을 때 아마 아줌마는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그때 버스에 한발을 돌려놓는 것으로 아줌마의 인생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의 삶’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15)
 ㄴ. 나는 그 여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석 오빠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5)

12) 한 심사위원이 지적하였듯이 ‘-더-’, ‘-구나’, ‘-네’ 앞에 ‘-겠-’이 나타날 경우 ‘-(으)ㄴ 수 {있/없}-’은 [실재적 {가능/불가능}]이 아니라 [잠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로 나타난다. 이것은 ‘-겠-’이 가진 양태적 특성인 ‘비현실성’ 및 ‘잠재성’이 ‘-(으)ㄴ 수 {있/없}-’에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겠-’의 의미기능적 특성에 관해서는 다카치 토모나리(2011)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위와 반대로 ‘-(으) 수 {있/없}-’가 분리형태 ‘-는 것이다’나 ‘-는 법이다’와 결합할 경우는 [실재적 {가능/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사실이나 진리를 표현하는 ‘-는 것이다’나 ‘-는 법이다’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15) ㄱ. 그리하여 이제야 나는 상이 주는 의미를 겹쳐서 생각해 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4)
- ㄴ. 불가능한 일도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8)
- ㄷ. 네티즌이 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할 수 없단 말인가? 네티즌은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세력과 싫어하는 정치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 호불호를 밝히는 것이 죄가 된다면, 이는 민주사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2)
- ㄹ.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법이다. (23)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은 [가능]/[불가능]이라는 사건 성립 여부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다는 공통적 기반이 있다. 또한 ‘-(으)ㄴ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의미 기능은 ‘사건의 성립방식(심정, 능력, 내부적 조부건, 외적 조건)’과 ‘성립 여부의 실재성/잠재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문맥적 배경(즉 화용적 해석(pragmatic reading)), 통사적 환경에 기대는 바가 크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능력], [허가], [자격] 등의 의미는 ‘-(으)ㄴ 수 {있/없}-’의 의미의 본질적 특성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과거형의 동사 어간에 결합할 경우의 의미적 본질을 ‘사건 성립의 [가능]/[불가능]’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의 성립방식(심정, 능력, 내부적 조부건, 외적 조건)’과 ‘성립 여부의 실재성/잠재성’의 2가지 관점에서 ‘-(으)ㄴ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의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후고의 과제로 남기고 뒤에서는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의 통사적 차이를 살펴보고 양 형태 간에 존재하는 의미 기능적 특성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의 차이점

우선 ‘-(으)ㄴ 수 없’은 ‘-(으)ㄴ 수 있’과 달리 지정사 ‘이’와의 결합이나 용언의 과거형과의 결합에 있어 제한적이다. ‘-(으)ㄴ 수 있’이 지정사 ‘이’의 어간에 결합한 아래의 예문 (16ㄱ), 그리고 용언 과거형에 결합한 (16ㄷ)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대로 ‘-(으)ㄴ 수 없’이 지정사 ‘이’의 어간과 결합한 (16ㄴ), 그리고 용언 과거형에 결합한 (16ㄹ)은 어색하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기능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 (16) ㄱ.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일까? 물론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다. (30)
- ㄴ.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일까?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作例)
- ㄷ. 트루먼의 잠재의식 속에 맥아더에 대한 혐오감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는 트루먼 자신도 몰랐을 수 있다. (김준봉/한국전쟁의 진실)
- ㄹ. ^{??}트루먼의 잠재의식 속에 맥아더에 대한 혐오감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를 트루먼 자신이 몰랐을 수 없다. (作例)

안주호(2004: 217)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는 본고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으)ㄴ 수 {있/없}.’을 양태 표지의 문법형태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위의 (16ㄴ, ㄷ)과 같은 문장의 경우라도 인식양태적 가능성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으)ㄴ 수 없.’이 인식양태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의 ‘-(으)ㄴ 수 없.’은 명제 내용에 대한 부정을 화자가 확정적으로 추측하는 의미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고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16ㄴ, ㄷ)의 문장은 자연스럽게 않으며 부정의 인식양태적 용법을 표현할 경우에는 아래 (17ㄱ, ㄴ)과 같은 ‘-(으)ㄴ 리가 없.’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 (17) ㄱ.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일까? 이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作例)
- ㄴ. 트루먼의 잠재의식 속에 맥아더에 대한 혐오감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를 트루먼 자신이 몰랐을 리가 없다. (作例)

또 ‘-(으)ㄴ 수 없.’에는 인식양태적 용법이 없다는 것을 아래의 예문 (18)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아래 예문 (18ㄱ~ㄷ)에서는 공통적으로 [불가능]을 나타내는 ‘못’이 내포되어 있다. (18ㄱ)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간주되는 것은 ‘-(으)ㄴ 수 있.’이 [가능]의 의미가 아니라 [가능성 제시]¹³⁾의 의미 기능, 즉 인식양태적

13)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과 [가능성 제시]는 다른 의미를 나타냄을 밝힌다. [가능]은 사건 성립 여부에 관련된 의미이고 기본적으로 비과거형의 동사로 인하여 표현되는 동적인 사건을 그 작용 대상으로 한다. 한편 [가능성 제시]의 의미는 언급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비과거형의 동사뿐만 아니라 상태성 용언이나 용언의 과거형 등으로 표현되는 상

용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으)ㄴ 수 없-’이 사용된 (18ㄴ)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18ㄴ)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으)ㄴ 수 없-’이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못’의 [불가능]의 의미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만약에 ‘-(으)ㄴ 수 없-’에 [가능성 제시]에 대한 부정의 의미, 즉 부정의 인식양태적 용법이 존재한다면 (18ㄷ)과 같이 (18ㄴ)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으)ㄴ 수 없-’에는 [가능성 제시]의 부정적 의미 기능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 (18) ㄱ. 이 모습을 기억 못 할 수도 있는데. (作例)
 ㄴ. ^{??}이 모습을 기억 못 할 수가 없는데. (作例)
 ㄷ. 이 모습을 기억 못 할 리가 없는데. (作例)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의 근본적 차이는 전자가 양면적인 성격인 것에 비하여 후자가 단면적인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래 (19)와 같은 예문이다. (19ㄱ)에서는 ‘결혼함’과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 공존하지만, (19ㄴ)에서는 두 내용이 공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으)ㄴ 수 있-’이 동일 상황(사건 혹은 명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相反)된 2개의 국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에 비하여 ‘-(으)ㄴ 수 없-’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의 국면의 존재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으)ㄴ 수 있-’에 인식양태적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으)ㄴ 수 있-’이 갖는 양면성(兩面性)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으)ㄴ 수 없-’의 인식양태적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으)ㄴ 수 없-’의 단면성(單面性)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9) ㄱ.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作例)
 ㄴ.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 (作例)

‘-(으)ㄴ 수 없-’의 단면성에 기인한 화용적 용법도 있다. 아래 예문 (20ㄱ)은 ‘-(으)ㄴ 수 있-’으로 인하여 단지 부정적인 성격의 명제 내용에 대한 과거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지만, (20ㄴ)에서는 부정적인 성격의 명제 내용에 ‘-(으)ㄴ 수 없-’의 [부정의 단면성]이 작용된 결과 긍정적인 성격의 상황이 ‘꼭 일어나야 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으)ㄴ 수 없-’은 화용적 해석으로

황을 그 작용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가능성 제시]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시하는 인식양태적 가능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당위]의 의미 기능을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 (20) ㄱ. 중국은 인민공사의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었다. (作例)
 ㄴ. 중국은 마침내 인민공사의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29)

4. ‘-(으)ㄹ 수 {있/없}-’의 의미구조

여기에서는 ‘-(으)ㄹ 수 {있/없}-’의 의미구조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위에서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21)과 같다.

- (21) ㄱ. ‘-(으)ㄹ 수 있.’과 ‘-(으)ㄹ 수 없.’은 ‘사건 성립’이라는 공통적 개념 기반에서 성립 가능과 성립 불가능이라는 개념으로 대립한다. 즉 ‘-(으)ㄹ 수 있.’은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으)ㄹ 수 없.’은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ㄴ. ‘-(으)ㄹ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사건 성립 방식’(즉 심정, 능력, 내부적 조건, 외부적 조건)과 ‘실재성’/‘잠재성’의 관점에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이 하위분류의 의미들은 통사적 환경, 화용적 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차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ㄷ. ‘-(으)ㄹ 수 있.’은 상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된 2개의 국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반대로 ‘-(으)ㄹ 수 없.’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의 국면의 존재만을 전제로 한다. 즉 ‘-(으)ㄹ 수 있.’은 양면성의 특성을 가지고 ‘-(으)ㄹ 수 없.’은 단면성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우선 위의 (21 ㄱ)을 근거로 ‘-(으)ㄹ 수 {있/없}-’의 근원적 의미를 [가능]/[불가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으)ㄹ 수 있.’과 ‘-(으)ㄹ 수 없.’은 의존명사 ‘수’를 내포하고 그것에 관형사형어미 ‘-(으)ㄹ’이 선행한다는 구성적 공통점을 가진 분리형태이다. 구성상 공통점이 있는 형태는 기능적으로도 공통적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주호(2004: 222-223)와 이주행(2009: 199)에서는 의존명사 ‘수’의 통시적 발달에 관하여 고찰한 바가 있는데 근대한국어에서 ‘-(으)ㄹ 수 {있/없}-’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안주호(2004: 226)는 ‘-(으)ㄹ 수 없.’이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 ‘-(으)ㄹ 수 있.’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으)ㄹ 수 {있/없}-’이 모두 [능력]이나 [허

용]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으)ㄴ 수 있-’의 [가능성 제시]의 용법은 나중에 출현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으)ㄴ 수 {있/없}-’의 근원적 의미를 [가능]/[불가능]으로 보는 본고의 입장을 뒷받침하여 준다.

표 3. ‘-(으)ㄴ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하위분류

		속성	
		실재성	잠재성
사건 성립 방식	심정	실재적 가능 (요인: 심정)	잠재적 가능 (요인: 심정)
	능력	실재적 가능 (요인: 능력)	잠재적 가능 (요인: 능력)
	내부적 조건	실재적 가능 (요인: 내부적 조건)	잠재적 가능 (요인: 내부적 조건)
	외부적 조건	실재적 가능 (요인: 외부적 조건)	잠재적 가능 (요인: 외부적 조건)
사건 불성립 방식	심정	실재적 불가능 (요인: 심정)	잠재적 불가능 (요인: 심정)
	능력	실재적 불가능 (요인: 능력)	잠재적 불가능 (요인: 능력)
	내부적 조건	실재적 불가능 (요인: 내부적 조건)	잠재적 불가능 (요인: 내부적 조건)
	외부적 조건	실재적 불가능 (요인: 외부적 조건)	잠재적 불가능 (요인: 외부적 조건)

다음으로 (21나)을 근거로 화용적 및 통사적 환경으로 인하여 ‘-(으)ㄴ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의미가 하위분류됨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위의 <표 3>과 같은 하위분류 의미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분류된 의미들은 ‘-(으)ㄴ 수 {있/없}-’의 확장 의미(expanded meanings)로 삼을 수 있다.¹⁴⁾

세 번째로 (21c)을 근거로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을 변별할 수 있는 의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으)ㄴ 수 있-’은 상황에 대한 긍정적 국면과 부정적 국면의 2가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적 특성에서 [가능성 제시]의 의미 기능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주호(2004) 등 선행연구에서는 아래 (22)와 같은 예문의 경우 인식양태적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의무양태적

14) 선행연구에서 ‘-(으)ㄴ 수 있-’의 의미로 거론된 [능력], [허가], [자책] 등은 본질적 의미에서 확장된 부차적 의미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본고가 제시한 사건 성립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본고는 사건 성립/불성립에 관여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의 의미를 하위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재성/잠재성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게 [가능]의 부차적 의미를 기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견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지만, 이것은 [가능성 제시]의 의미가 ‘-(으)ㄴ 수 있-’의 본질적 의미 특성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2) 가. 아홉 개밖에 안 되는 병실은 1인용이 둘, 2인용이 넷, 3인용이 셋으로
서 모두 열아홉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14)

나. 무용대회가 열리는 강당 안에는 참가자들과 심사위원, 귀빈만 들어갈
수 있다. (15)

그러나 본고는 ‘-(으)ㄴ 수 있-’의 인식양태적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진정한 뜻의 양태 표지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으)ㄴ 수 있-’의 인식양태적 용법은 통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16가, 다), (18가), (19가), (20가), (22가, 나)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래 (23)과 같은 경우 과연 ‘-(으)ㄴ 수 있-’이 인식양태적 용법으로 해석되는지 의문스럽다. (23가, 나, 다)에서는 형용사 어간이나 존재사 ‘없-’의 어간에 ‘-(으)ㄴ 수 있-’이 결합하고 그 뒤에 추측 형태인 ‘-(으)ㄴ 것이-’가 결합한다. 안주호(2004)의 견해대로라면 이러한 경우에 ‘-(으)ㄴ 수 있-’은 인식양태적 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말 자리에 나타나는 ‘-(으)ㄴ 것이-’가 인식양태적 용법으로 [추측]의 의미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23가, 나, 다)의 ‘-(으)ㄴ 수 있-’은 단지 언급되는 상황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示唆)하는 기능, 즉 [가능성 제시]의 의미 기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으)ㄴ 수 있-’의 인식양태적 용법이 ‘-(으)ㄴ 수 있-’ 뒤에 인식양태적 의미 기능을 보유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의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서 부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해석상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양태표지가 없는 환경에서 ‘-(으)ㄴ 수 있-’의 인식양태적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위의 3.2에서 언급한 ‘-(으)ㄴ 수 있-’의 핵심적 특성인 ‘양면성’에 있다. ‘-(으)ㄴ 수 있-’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긍정의 국면을 명시하면서도 그와 대립되는 부정의 국면을 함축한다. 이러한 특성은 ‘-(으)ㄴ 것이-’로 드러나는 [추측]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하다. [추측]의 의미는 어떤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에 대한 긍정의 국면과 부정의 국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으)ㄴ 수 있-’에 다른 양태표지가 후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식양태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23) 가.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 자신이 추구하는 경력 상
의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과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들이 가진 네트워크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24)

- ㄴ. 예를 들어 녹내장과 같은 눈의 질환도 해부학적으로 뇌와 척수, 눈은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뇌척수액도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과라 해서 눈만 치료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오히려 치료 경과가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
- ㄷ.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자보다 남자가 찾아올 확률이 높다. 왜 그럴까? 은행이라는 전통적 제1금융기관에서는 젊은 여자나 남자의 비율이 그다지 차이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는 선택적으로 고수익을...(생략). (28)

‘-(으)르 수 없.’의 경우는 하나의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의 국면의 존재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적 특성에서는 ‘-(으)르 수 있.’의 경우와 같은 [가능성 제시]의 의미 기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으)르 수 없.’이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내용이 ‘-(으)르 수 없.’의 작용 대상이 될 경우는 강력한 [당위]의 의미를 파생한다. 위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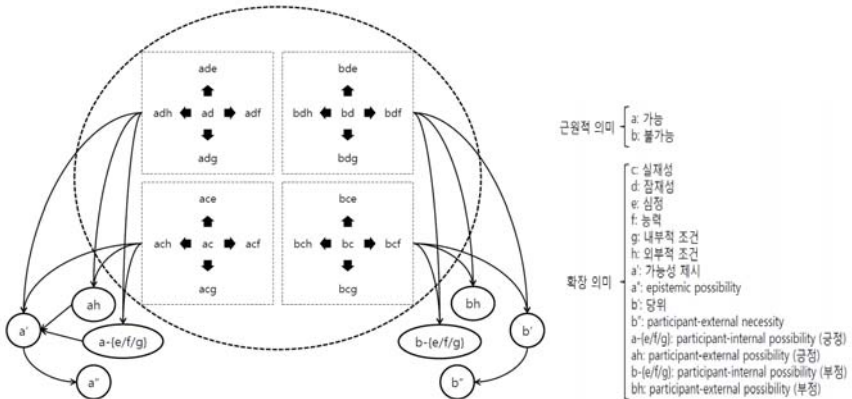


그림 1. ‘-(으)르 수 {있/없}’의 의미구조.

<그림 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으)르 수 {있/없}’은 사건의 성립이라는 공통적 기반에서 [가능]/[불가능]이라는 대립되는 근원적 의미를 가진다.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심정’, ‘능력’, ‘내부적 조건’, ‘외부적 조건’의 4가지 ‘사건 성립 방식’과 ‘실재성’/‘잠재성’의 관점에서 더 상세한 부차적 의미로 해석된다. ‘-(으)

ㄹ 수 {있/없}-'의 [가능]의 의미의 부차적 의미들은 참여자 외적 양태 혹은 참여자 내적 양태로 통합된다. 여기까지는 '-(으)ㄹ 수 있-'과 '-(으)ㄹ 수 없-'의 공통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 형태 간의 차이는 '-(으)ㄹ 수 있-'의 [가능]의 의미에서 [가능성 제시]의 의미로 확장되고, '-(으)ㄹ 수 없-'의 [불가능]의 의미에서 [당위]의 의미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으)ㄹ 수 있-'의 [가능성 제시]의 의미는 특정 통사적 화경에서 인식양태적 가능성(epistemic possibility)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으)ㄹ 수 없-'의 [당위]의 의미는 참여자 외적 양태적 필연성(participant-external necessity)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으)ㄹ 수 있-'과 '-(으)ㄹ 수 없-'은 의미 확장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5. '-(으)ㄹ 수 {있/없}-'의 양태성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행연구에서 '-(으)ㄹ 수 {있/없}-'을 양태 표지로 보느냐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시정곤, 김건희(2009)는 '-(으)ㄹ 수 {있/없}-'을 양태 표지로 보는 것에 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으)ㄹ 수 {있/없}-'이 진정한 인식양태 구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태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문장에서 '-(으)ㄹ 수 {있/없}-'이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은 전통적으로 양태 논의에서 다루어진 것이다. 또 시정곤, 김건희(2009: 149)는 영어의 범조동사 'can'을 동적양태(dynamic modality)로 보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¹⁵⁾한 Palmer(1995: 7)의 주장을 원용하여 'can'과 유사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으)ㄹ 수 {있/없}-' 역시 양태와 관련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으)ㄹ 수 {있/없}-'의 의미는 동적양태와 관련된 의미뿐만 아니라 의무양태와 관련이 있는 의미도 있다. '-(으)ㄹ 수 있-' 뒤에 추측 형태가 이어진 경우 등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서의 쓰임을 제외하면 '-(으)ㄹ 수 {있/없}-'의 의미는 대개 위의 2에서 제시한 van der Auwera & Plugian(1998)의 양태 개념 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으)ㄹ 수 {있/없}-'을 양태 표지로 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고찰과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으)ㄹ 수 {있/없}-'이 양태 표지인지 아닌지는 이분법 관점에서의 고찰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으)ㄹ 수 {있/없}-'에 대하여 원형적 접근(proto-

15) 동적양태 설정에 대해서는 Palmer(1995)뿐만 아니라 Bybee & Fleischman(1995), Gisborne(2007) 등 일부 연구자도 회의적 입장을 취한다.

type approach)¹⁶⁾을 도입함으로써 ‘-(으)ㄴ 수 {있/없}-’의 양태성 정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으)ㄴ 수 {있/없}-’의 양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표 4>에서 제시한 파라미터(parameter)를 설정한다.¹⁷⁾

표 4. 양태성 측정을 위한 파라미터.

		양태성	
		높음	낮음
파라미터	ㄱ. ‘비사실성(non-factuality)’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가?	○	×
	ㄴ. 항상 양태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가?	○	×
	ㄷ. 다른 양태 표지 형태가 후행할 수 있는가?	×	○

우선 <표 4>의 (ㄱ)의 관점에서 ‘-(으)ㄴ 수 {있/없}-’을 살펴보자. 위의 2에서 언급하였듯이 비사실성의 개념은 인식양태와 의무양태 등 양태의 하위분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비사실성의 개념과 관련이

- 16) 원형적 접근(prototype approach)이란 인지미론(cognitive semantics)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고찰방법의 하나인데,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은 균일적인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것도 있으며,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인정하고 전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 17) 양태가 명제 내용에 대한 ‘비사실성’과 관련이 있는 의미를 통합하는 의미범주라는 것은 위의 2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양태 표현은 원칙적으로 ‘비사실성’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으)ㄴ 것이-’는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이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사실성’과 관련이 있다. 이와 반대로 ‘-(어) 있-’은 [완료]라는 동작의 국면을 나타내지만 명제를 대상으로 한 비사실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어) 있-’은 양태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4>(ㄱ)은 양태표현으로서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태적 의미의 상시적 제시 여부를 묻는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전형적 양태표현은 항상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만약 어떤 형태가 특정 통사적 환경에서 양태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그 형태는 진정한 뜻의 양태표지로 삼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으)려고 하-’는 주어의 [의지], 절박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확신도가 높은 판단]과 같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관형절에서 사용되고 주어에 [-의지성(agency)]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절박상황]과 같은 상적 의미(aspectual meaning)를 나타내므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 한다. 따라서 ‘-(으)려고 하-’는 전형적 양태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다른 양태표현과의 결합 여부에 대하여 묻는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Nuyts(2009)가 언급하였듯이 보통 하나의 절(clause)에는 하나의 양태표지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는 그 특성상 어말형태에 양태표현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양태성이 높은 양태표현은 그 뒤에 다른 양태표현을 결합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으)ㄴ 것이-’는 그 뒤에 다른 양태표현이 결합할 수 없으므로 상당히 양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서 제시한 3가지 파라미터에 따라 양태표현은 ‘의사적 양태 표지(pseudo-modal marker)’, ‘진정 양태 표지(real-modal marker)’로 분류된다. ‘진정 양태표지’란 상시적으로 양태적 의미를 내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표 4>(ㄷ)의 파라미터에 따라 ‘진정 양태표지 A류’와 ‘진정 양태표지 B류’로 하위분류된다. A류는 다른 양태표현이 후행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B류는 다른 양태표현이 후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진정 양태표지 A류’는 상당히 양태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의사적 양태표지란 의미 기능적으로는 진정 양태표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러한 기능이 한정된 통사적 환경에서 제시되거나 본질적 의미 기능이 아닌 경우가 이것에 해당된다.

있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해당 문법형태의 양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으)ㄴ 수 있-’의 근원적 의미인 [가능]과 ‘-(으)ㄴ 수 없-’의 근원적 의미인 [불가능]은 잠재적 사건을 대상으로 그 사건의 성립 여부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사실성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으)ㄴ 수 있-’의 [가능]의 의미에서 확장된 [가능성 제시]의 의미는 불확실한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것 역시 비사실성의 특성을 보유한다. 그리고 ‘-(으)ㄴ 수 없-’의 [불가능]의 의미에서 확장된 [당위]의 의미도 잠재적 사건의 성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사실성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의 (ㄴ)의 관점에서 ‘-(으)ㄴ 수 {있/없}-’을 살펴보자. ‘-(으)ㄴ 수 없-’은 [불가능] 혹은 [당위]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van der Auwera & Plugian(1998)에서 말하는 참여자 {내적/외적} 양태에 해당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으)ㄴ 수 있-’을 [가능]의 의미로 볼 경우 참여자 {내적/외적} 양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으)ㄴ 수 있-’이 [가능성 제시]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 통사적 환경에 따라 인식양태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으)ㄴ 수 있-’이 상시적으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 번째로 <표 4>의 (ㄷ)의 관점에서 ‘-(으)ㄴ 수 {있/없}-’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예문 (13), (14), (15), (23)에서 보여주듯이 ‘-(으)ㄴ 수 {있/없}-’ 뒤에는 다양한 양태 표지 형태가 결합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파라미터에 따라 검증한 결과, ‘-(으)ㄴ 수 {있/없}-’은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양태 표지와 비슷한 성격을 보유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성격이 ‘-(으)ㄴ 수 {있/없}-’의 근원에서 파생된 것이며 상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통사적 측면에서 양태 표지로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찰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으)ㄴ 수 {있/없}-’을 양태 표지와 비슷한 의미 기능적 양상을 보이는 ‘의사적(擬似的) 양태 표지’로 보고자 한다.

6. 결론 및 남은 문제

지금까지 ‘-(으)ㄴ 수 {있/없}-’의 의미구조와 양태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의 통사적 공통점에 주목하여 양 형태 간의 의미 기능적 공통점을 살펴본 결과,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은 ‘사

건 성립’이라는 공통적 기반에서 성립 가능과 성립 불가능이라는 개념으로 대립함을 밝혔다. 이것을 바탕으로 ‘-(으)ㄴ 수 {있/없}-’의 근원적 의미를 [가능]/[불가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으)ㄴ 수 {있/없}-’의 [가능]/[불가능]의 의미는 ‘사건 성립 방식’의 관점뿐만 아니라 ‘실재성/잠재성’의 관점에서도 하위분류가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의 통사적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결과 양 형태 간에는 ‘양면성’/‘단면성’이라는 의미 기능적 차이점이 존재함을 밝혔다. ‘-(으)ㄴ 수 있.’의 인식양태적 용법은 ‘-(으)ㄴ 수 있.’이 보유하는 ‘양면성’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으)ㄴ 수 없.’의 ‘단면성’은 절대적인 부정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의 내용과 조합되면 강력한 [당위]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고찰 결과에 근거하여 ‘-(으)ㄴ 수 {있/없}-’의 의미구조를 살펴보면, ‘-(으)ㄴ 수 있.’과 ‘-(으)ㄴ 수 없.’은 공통기반 부분에서는 의미 기능적 대립관계의 양상을 보이지만, 확장의미의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줌을 알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형적 접근을 도입하여 ‘-(으)ㄴ 수 {있/없}-’의 양태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으)ㄴ 수 {있/없}-’은 상시적으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 다른 양태 표지 형태와 결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한 뜻의 양태 표지로 보기 어렵고, 양태 표지와 비슷한 의미 기능적 양상을 보이는 ‘의사적(擬似的) 양태 표지’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고의 고찰 내용과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점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고의 견해가 현대 한국어 연구에 있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어 연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고는 ‘-(으)ㄴ 수 {있/없}-’의 의미구조와 양태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시론적 면이 있으며 아직 미비한 점은 있다. 특히 ‘-(으)ㄴ 수 {있/없}-’이 사용되는 화용적 환경이나 통사적 환경에 따라 드러날 수 있는 의미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 과제는 후고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남기심. (2001). 『현대 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 다카치 토모나리. (2011). “다의성 분석의 입장에서 바라본 ‘-겠-’의 의미구조”, 『언어』 36.1, 93-116.
- 박재연. (2003). “한국어와 영어의 양태 표현에 대한 대조적 고찰: 부정과 관련한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199-222.

-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 시정곤, 김건희. (2009).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적 고찰”, 『한국어학』 44, 177-212.
- 안정아. (2005). “의존명사 ‘수’와 ‘줄’의 연구”, 『어문논집』 52, 121-145.
- 안주호. (2004). “‘-르 수 있’ 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 53, 207-232.
- 이주행. (2009). 『한국어 의존 명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임동훈. (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12, 127-153.
- van der Auwera, Johan. and Plungian, Vladimir. A. (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79-124.
- Bybee, Joan.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ybee, Joan, Pagliuca, William. and Perkins, Revere.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Press.
- Bybee, Joan. and Fleischman, Suzanne. (1995).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isborne, Nikolas. (2007). Dynamic Modality. *Journal of Theoretical Linguistics [online]*, 4.2, 44-61. (http://www.skase.sk/Volumes/JTL09/pdf_doc/4.pdf)
- Groefsema, Marjolein. (1995). Can, may, must and should: A relevance theoretic account. *Journal of Linguistics* 31, 53-79.
- Heine, Bernd. and Kuteva, Tania.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pper, Paul. J. and Traugott, Elizabeth. C. (2003). *Grammaticalization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ye, Leo. (1997). *Adverbs and Modality in English*. Longman.
- Kearns, Kate. (2000). *Semantics*. Palgrave Macmillan.
- Klinge, Alex. (1993). The English modal auxiliaries: From lexical semantics to utterance interpretation. *Journal of Linguistics* 29, 315-357.
- Lee, Jungmee. (2011). The Korean evidential *-te*: A modal analysis.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8, 287-311.
- Lyons, John.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yts, J. (2009) The one-commitment-per-clause' principle and the cognitive status of qualificational categories, *Linguistics* 47, 141-171.
- Palmer, Frank. R. (1995).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3rd edition]*. London: Logman.
- Papafragou, Anna. (2000). *Modality: Issues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6, Elsevier Science.
- Quirk, Randolph, Greenbaum, Sidbey, Leech, Geoffrey and Svartvik, Jan.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Sweetser, Ev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lmy, Leonard. (1988).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cognition. *Cognitive Science* 2, 49-100.

菅野裕臣. (2006). “朝鮮語の分析的な形について”. 『アルタイ語研究』, 1, 109-124.

渋谷勝己. (1993). “日本語可能表現の諸相と発展”. 『大阪大学文学部紀要』, 33.1, 1-262.

사용한 언어자료

1. 강영수. (1999).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65일 고사성어 대백과』, 서울: 좋은글.
2. 고하승. (2008). 『왜 박근혜인가』, 서울: 시민일보.
3. 공지영. (2005).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서울: 푸른숲.
4. 구분형. (2009). 『구분형의 더 보스』, 서울: 살림Biz.
5. 김무상. (2003). 『어류의 생태』, 서울: 아카데미서적.
6. 김미숙. (2009). 『첫아이 유치원 보내기』, 서울: 다산에듀.
7. 김준봉. (2010). 『한국전쟁의 진실』, 서울: 이담북스.
8. 박홍진. (2008). 『단기속성 승진방법』, 서울: 위즈덤하우스.
9. 배수아. (2012). 『배수아 단편집: 은둔하는 북의 사람(제23회 이상문학상 수상)』, 서울: ebook21.
10. 송성수. (2008). 『100일 염불 수행』, 서울: 불교시대사.
11. 유종오. (2007). 『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 서울: 스마트비즈니스.
12. 유지은, 김영신. (2011). 『감성자극 태교동화』, 서울: 아이앤북.
13. 윤영미. (2009). 『SBS 아나운서 윤영미의 열정』, 서울: 경향미디어.
14. 윤후명. (1998). 『5대 문학상 수상 소설집』, 서울: 한국문학도서관.
15. 은희경. (1996). 『새의 선물』, 서울: 문학동네.
16. 은희경 외. (1998).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22, 1998』, 서울: 문학사상사.
17. 이민규. (2007).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 서울: 더난출판사.
18. 이상길. (2007). 『일등전략』, 서울: 꿈과희망.
19. 이양호. (2011). 『양과겉질과 마뜨료시카』. 서울: 친디투스연구소.
20. 이영돈. (2006). 『마음』, 서울: 예담.
21. 이우재. (2012). 『이우재의 맹자 읽기』, 서울: 21세기북스.
22. 이원일. (2003). 『빛 확실하게 줄여주는 63가지 방법』, 서울: 더난출판사.
23. 이재규. (2010).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 서울: 위즈덤하우스.
24. 정명호. (2005). 『휴먼 네트워크와 기업경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5. 진정. (2003). 『386세대 그 빛과 그늘』, 서울: 문학사상사.
26. 티브이데일리 (2013. 10. 02.) 기사.
27. 한상운. (2009). 『무심한 듯 시크하게』, 서울: 로크미디어.

28. 한정. (2007). 『한국의 여자 부자들』, 서울: 살림Biz.
29. 홍성민. (2003). 『사람이 중요하다』, 서울: 바움.
30. 황숙혜. (2010). 『증권 개념어 사전』, 서울: 원앤원북스.

다카치 토모나리(Takachi Tomonari)

300-718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20호 글로벌센터

전자우편: tomo_takachi@wsu.ac.kr

접수일자 : 2013. 10. 23

수정본 접수 : 2013. 11. 14

게재결정 : 2013. 11. 18